

## ONE AND J. GALLERY [원앤제이 갤러리 11, 12월 전시 보도자료]

전시 제목 : <용기와 시>

전시 기간 : 11월 26일(화) - 12월 22일(일)

오픈 시간 : 화 ~ 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월요일 쉼)

전시 오픈닝 : 11월 26일(화) 오후 6시

퍼포먼스 :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

12월 18일(수) - 21일(토) 저녁 7시

컨셉/안무: 황수현

퍼포머: 강호정, 박유라, 황다솜

전시 장소 :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종로구 북촌로 31-14)

참여 작가 : 김소철, 이윤이, 장서영, 한진, 황수현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협찬 : 원앤제이 갤러리

문의 : 양서연 (홍보 | 010-6721-2988 / [sy@oneandj.com](mailto:sy@oneandj.com)),

안민혜 (기획 | 010-9668-8883 / [meene@oneandj.com](mailto:meene@oneandj.com))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open?id=1vlwV1XITRtdZCEq3tJ9GTrX4d2mOh3Yz>

원앤제이 갤러리에서는 오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그룹전 <용기와 시>를 개최한다. 김소철, 이윤이, 장서영, 한진 작가가 참여하며 황수현 안무가의 퍼포먼스가 전시 마지막 주에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용기와 시>는 프랑스 철학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Georges Didi-Huberman이 자신의 책 『반딧불의 잔존 - 이미지의 정치학』에서 인용한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 Giorgio Agamben의 문구로부터 시작된다. 위베르만은 이 책에서 아감벤의 「동시대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동시대인의 임무로 '용기 - 정치의 덕 - 와 시'를 손꼽는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동시대인은 시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도달할 수 없는 빛'을 지각하려는 용기를 가진 자이며, '언어를 부러뜨리고, 외관을 부수고, 시간의 통일성을 분산시키는 기예'로서의 시를 쓸 수 있는 자이다.

전시는 이러한 '동시대인의 임무'를 예술가의 임무로 번역하고 '도달할 수 없는 빛'을 아직 호명되지 않은 '고통 - 소수성 - 부조화'로 해석한다. 또한 작품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이 고통들

이 전시라는 통해 발행되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로인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소수성들의 정치적 단위로의 진입을 상상한다.

**김소철**은 아코미미술관 담벼락을 허물거나 담배를 직접 키우고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관객참여와 같은 미술 형식으로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개입하며 시민사회 영역과 즐거움의 운동(conviviality)을 주로 다뤄왔다. 현재는 독립출판물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매체들을 수집하며 그것들이 이용자들에게 텍스트로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가벽을 활용해 공간을 구획하고 전시 관람의 경험에 개입한다. 영국의 스토크 가든과 건축가 리베스킨트에게 영감을 받은 이 가벽들은 자연의 환경에서 길을 헤매며 우연히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객을 유도한다. 또한 다양하게 꼬인 복도, 예리하게 꺾이는 벽과 갑작스레 맞닥뜨리는 공간들은 작업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관객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위협적인 것으로 연출되었다.

**이윤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비서사적인 행동과 말을 수집하며 영상과 사진, 설치 작업들을 선보여왔다. 사적인 사건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과 언어, 행동들이 작품 안에서 시화(詩化)될 때 그것들은 일상적이고 진부한 언어에서 정치적 언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언어로 변모한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영상 <습지, 영주권, 트리오>은 함께 유학생살을 하던 남자친구가 영주권 문제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야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남자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가벼운 사건일 수 있지만 영상 속 화자에게는 삶의 모든 형태들이 뒤바뀌고 분절되어 버리는 재난이 되어버린다. 또한 작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자의 목소시를 빌려 국가제도가 실제의 삶과 부조화 될 때 불안함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스스로의 질병 연대기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장서영**은 병명을 알 수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과 이질감 등을 통해 존재의 어긋남과 어두움을 드러낸다. 병이 낫지 않고 불안과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작가의 상태,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야하는 상태들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 스스로의 인식과 세상의 인식의 차이와 갈등 속에서 늘 두려움과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야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비유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개인 질병의 연대기는 이로서 보이지 않는 고통들을 대변하고 그 삶들에 대한 사유를 제안한다.

**한진**은 중첩되거나 어지럽혀진 시간들 안에서 명료하게 몸(기억)에 남은 풍경들을 회화 또는 드로잉으로 재현한다. 그것들은 작가의 기억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어느 선상에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재현'이며 분

명한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대상을 극한까지 따르며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이는 몸에 새겨진 풍경을 다시 몸을 통해 재현하려는, 재현이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으로 작가가 몸소 다가가려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서야 작가는 붓을 놓는데 그림으로써 보는 이들은 작가가 재현한 풍경을 공유 받게 되고 비로소 현재의 시간 안에서도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황수현은 오랫동안 감정이 배제된 움직임, 코레오그래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 탐구해왔다. 작가는 <우는 감각>, <아임 크라잉, 벗 아임낫새드>,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 <검정감각> 등의 작업을 통해 울음과 웃음이라는 강렬한 신체표현들이 아무 감정을 담지 않고도 표출되어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표출되는 순간,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용수 사이, 무용수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는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감정과 신체반응을 분리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통의 재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완전히 통합할 수도 없는 어느 지점에서, 알듯말듯한 -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 어떤 고통의 지점에서 살아간다. 황수현의 퍼포먼스에서 보여지는 웃음은 기계적인 웃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고통의 어긋난 표현이 된다.

## 첨부 1. [작가소개]

김소철 Socheol Kim

[socheol.k@gmail.com](mailto:socheol.k@gmail.com)

위스콘신주립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과 판화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개인전 《시민 행동》(원앤제이 플러스원, 2018), 《시작은 담배》(염리동 담배센터, 2016) 등을 개최했으며, 《반사적 바깥》(KT&G 상상마당 2014), 《소셜뮤지엄》(스페이스 빔, 2011)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프닝 프로젝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2013)와 〈Chain My Heart〉(Wisconsin Percent for Art 주최, 2010)를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난민공동체의 퍼레이드와 심포지엄 및 쇼케이스 전시 《용기와 시: 유동성 시대의 난민과 예술》(2018)를 공동기획했다.

장서영 Seo Young Chang

[saeng02@gmail.com](mailto:saeng02@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학부 및 석사를 졸업하고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Art in Context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개인전 《Off》(두산갤러리 뉴욕, 2019)와 《블랙홀바디》(씨알 콜렉티브, 2017) 등을 개최하였다. 《틱-톡》(온수공간, 2019),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9), 《더블 네거티브: 화이트큐브에서 넷플릭스까지》(아르코 미술관, 2018), 《보이스리스-일곱 바다를 비추는 별》(서울시립미술관, 2018), 《눈은 구멍으로, 밤으로 들어가 먹히듯 몸이 되었습니다》(아트 스페이스 풀, 2018), 《아크로바틱 코스모스》(원앤제이 갤러리, 2018)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윤이 Yi Yunyi

[yyunyi@gmail.com](mailto:yyunyi@gmail.com)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한국 현대시를 공부하고, 뉴욕시립대 헌터컬리지에서 순수미술 학부와 복합매체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개인전《씩 다 살아졌음》(두산갤러리, 2019), 《내담자》(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2018), 《두 번 반 매어진》(인사미술공간, 2014) 등을 개최하였고, 아마도 예술공간(2017),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2016), 국제갤러리(2016), 교역소(2016), 갤러리

팩토리(2015)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8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2020년 상반기에 두산레지던시 뉴욕에 입주하고 5월에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한진 Han Jin

[jhan0916@gmail.com](mailto:jhan091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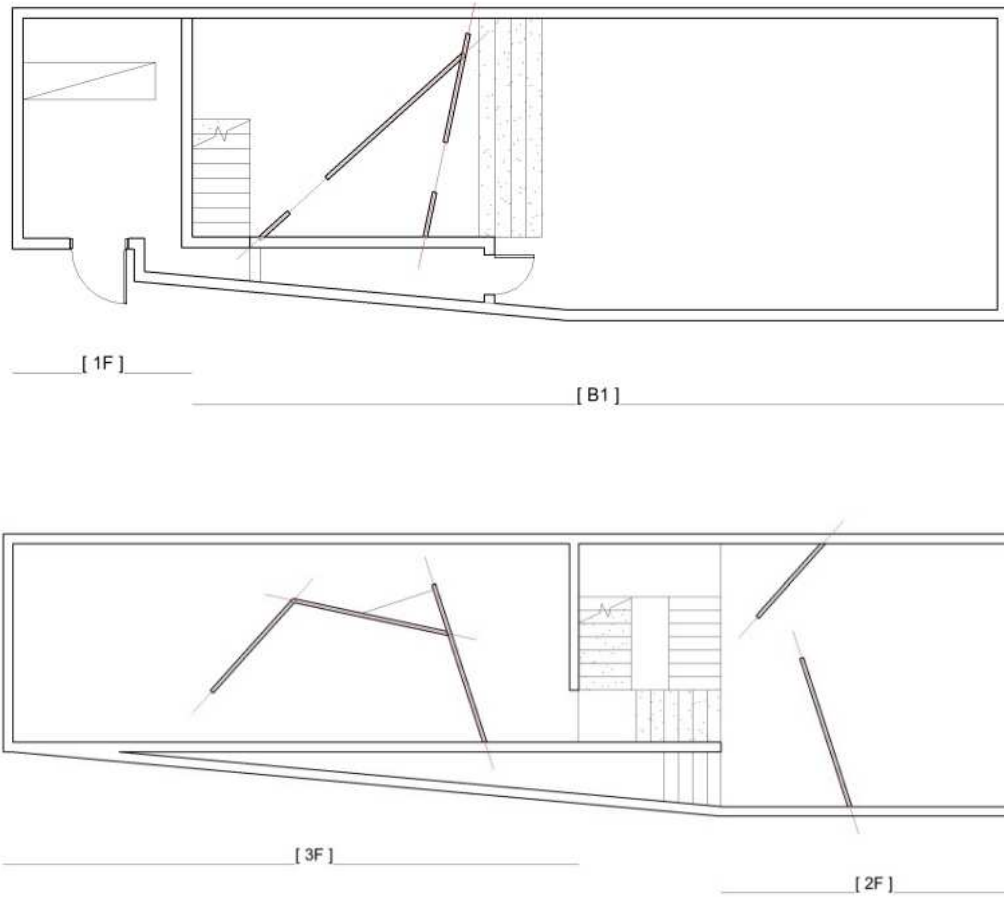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개인전 2018 《흑빙》(갤러리 조선, 2018), 《White Noise》(아트 스페이스 풀, 2016) 《아득한 울림》(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5), 《dim. Garden》(DM아트센터 DM갤러리, 2011) 등을 개최하였다.  
《감각의 소용》(스페이스K, 2019), 《경기아카이브-지금, 경기도미술관 특별전》(경기상상캠퍼스, 2018) 《이면탐구자》(경기도미술관, 2017), 《도큐먼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6), 《풀이 선다》(아트 스페이스 풀, 2015), 《회색의 바깥 - 차미혜, 한진 이인전》(아트스페이스 풀, 2014)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황수현 Soo-hyun Hwang

[hwang.soo Hyun@gmail.com](mailto:hwang.soo Hy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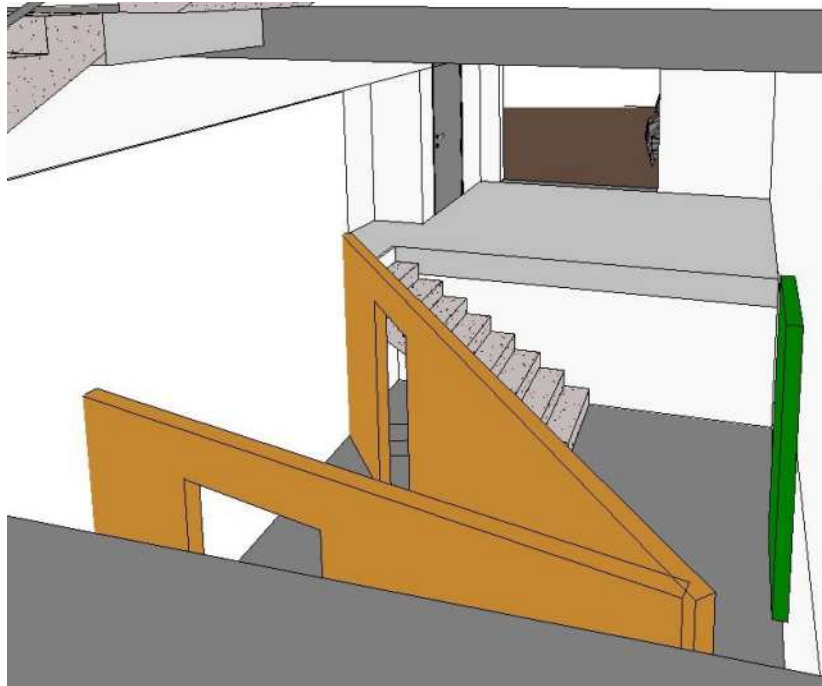
황수현은 현대무용을 전공한 안무가로 2012년 페스티벌 도쿄에 초청, 2015년 페스티벌 봄, 2016년 국립현대 미술관 다원예술 프로그램 참여작가, 2017년 서울무용센터 X New York movement research 레지던시 교환 예술가, 2018년 원앤제이 갤러리 퍼포먼스 참여, 2019년 변방연극제, 서울공연예술제에 참여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안무작으로 <저장된 실제>(서울무용센터, 2014),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국립현대미술관, 2016), <우는 감각>(원앤제이 갤러리, 2018), <검정감각> (대학로예술극장, 2019) 등이 있다.

첨부 2. [전시출품작 이미지]



김소철, <가든 프로젝트 (연립가벽)>, 2019.

원앤제이 갤러리에 설치된 목재 합판 가벽 7점, 5200 x 2100 x 70 mm, 3950 x 2100 x 70 mm, 3300 x 3300 x 70 mm, 2100 x 2100 x 70 mm, 3500 x 1870 x 70 mm, 3320 x 2060 x 70 mm, 2600 x 2330 x 7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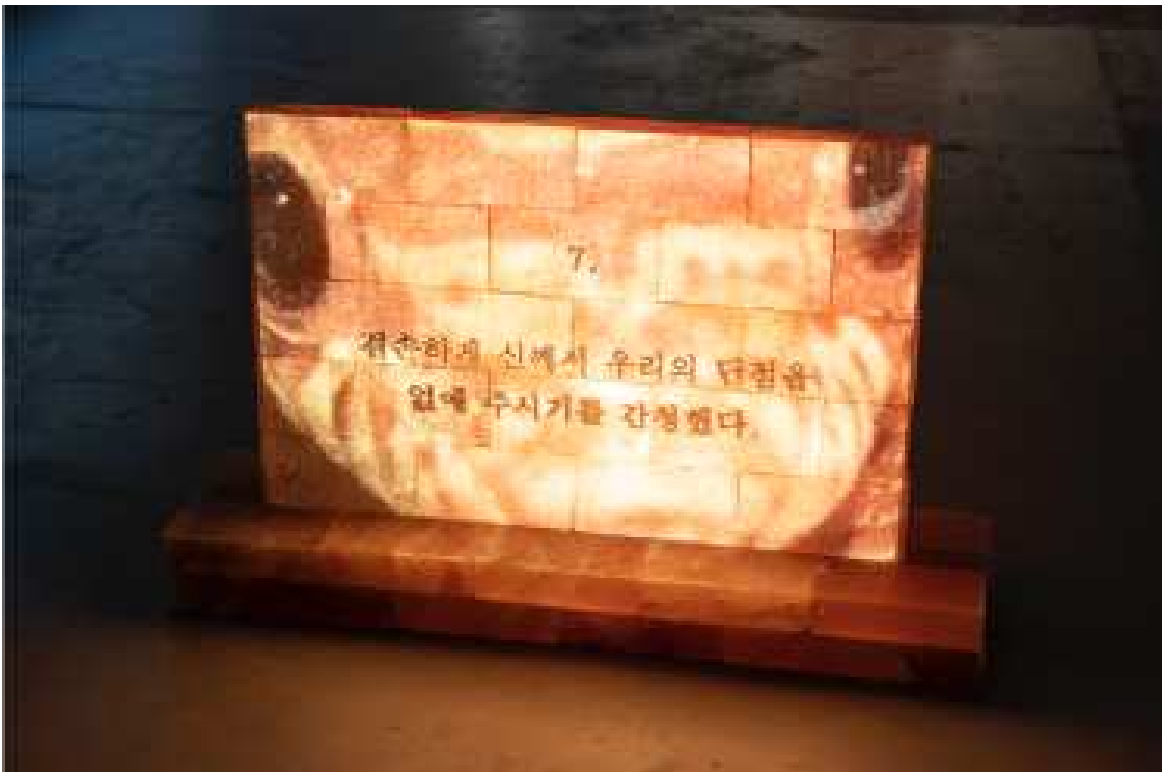


김소철, <가든 프로젝트 (연립가벽)>, 2019. “배치도”



이윤이, <습지, 영주권, 트리오>,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나이트 비전, 10분 07초.





이윤이, <A.A.12 단계>, 2019. OHP, 35mm 슬라이드 영사기, 히말라야 핑크 암염 소금, 1020 x 630 x 260mm.



장서영, <이름없는 병>, 2016. 2채널 영상, 루프.



장서영 <영원히 반복해서 익사하는 곰 이야기>, 2013. 단채널 영상, 16분.



한진, <해안선 #2>, 2017-2018. 린넨에 유채, 193.9 x 260.6 x 5 cm.



한진, <바람의 안쪽 #1>, 2017. 린넨에 유채, 130.3 x 130.3 x 3 cm.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 연출 이미지

컨셉 / 안무: 황수현

퍼포머: 강호정, 박유라, 황다솜

공연시간: 50분

제작연도: 초연 2019년

첨부 3. [전시서문]

## 용기와 시

그(아감벤)에게는 우리가 “현재성”으로서 지각하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오직 “위상차와 시대착오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이 동시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시대인이란 현재적 세기의 스펙터클을 어둡게 만들어 이런 어둠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여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빛”을 지각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아감벤은 이런 임무가 용기 - 정치의 덕(德) - 와 시(詩)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그가 말하는 시란 언어를 부러뜨리고, 외관을 부수고, 시간의 통일성을 분산시키는 기예이다.

-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반딧불의 잔존』, 69쪽

/ 예술가는 아주 내밀한, 보이지 않는 고통의 곁에 있어야 한다.

휩쓸린 시야가 미처 다다르지 못하는 고통, 존재하나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작업을 추구해야한다.

/ 한참 동안 ‘용기와 시’를 시인의, 또는 예술가의 임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감벤이 예술가의 덕목으로 ‘용기와 시’를 꼽았노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막상 원문을 찾아보니 아감벤이 동시대인을 ‘시인 - 또는 예술가’라고 일컬은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착각으로 혼자 그 말을 비장하게 되뇌이며 “용기는 무엇이고 시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술가의 태도와 예술의 형식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하며 감탄해 마지않았거늘. 비장했던 몇 년이 갑자기 코메디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런 문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 동시대성을 설명하는 아감벤의 어투는 누구보다도 비장하다.

... 동시대성이란 거리를 두면서도 들러붙음으로써 자신의 시대와 맺는 독특한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시차와 시대착오를 통해 시대에 들러붙음으로써 시대와 맺는 관계이다. 시대와 너무 완전히 일치하는 자들, 모든 점에서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는 자들이 동시대인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까닭에 그런 자들은 시대를 보지 못하고, 시대에 보내는 시선을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려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이 빛을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은 드물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시대의 어둠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에게서 무한히 멀어지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핑크 널 수밖에 없는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 조르주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72쪽 ~ 79쪽

/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다. 고통은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되며, 아무리 공감이 뛰어난 사람에게 의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감하여지지도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고통은 피병이나 암살, 또는 과민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고통도 사회가 인정한 등급에 따라 티를 내도되거나 내서는 안되는, 양해를 구할 수 있거나 양해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고 있는가보다. 어릴 적 혼자 재미로 쓴 소설 중에 사람들의 고통이 그 정도에 따라 점수로 책정되어 신분증에 기입되는 사회를 상상한 것이 있다. 그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의 고통지수를 먼저 확인해야하며 상대의 고통지수가 더 클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고통을 절대 드러내선 안된다. 아주 큰 실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체포된다. SF소설이 늘 그렇듯이.

/ 건강했지만 20세 무렵부터 나는 편두통에 시달렸다. 3~4주마다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무척 혼란스러운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데, 한낮이 되면 고통이 가장 심하지만 그래도 정중선(正中線)을 넘지는 않는다. 그 고통은 대개 저녁이 되면 차츰 사라진다. 휴식 중일 때는 견딜만하지만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고통은 관자동맥(temporal artery)의 맥박에 맞춰 반응한다. 시간이 지나도 반대쪽은 정상이지만 아픈 쪽의 동맥은 여전히 단단한 밧줄처럼 느껴진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버린다. 오른쪽 눈은 작아지고 붉어진다. 발작이 한창일 때는 아주 격렬해지면서 욕지기가 난다... 아마 가벼운 위장장애가 남을 것이다. 다음 날 머리가죽을 만지면 아플 때가 많다... 발작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예전 같으면 벌써 발작을 일으켰을 만한 영향을 받아도 무사했다.\*

/ 우울증, 공황장애, ADHD 약을 처방받았다. 약을 먹으면 눈물이 그친다. 사회에서는 눈물을 필요한 곳에서만 허용한다. 다시말해 보통의 일상에서 울지 않아야만 사회에서 '정상'의 범주로 들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나에게 눈물과 눈물 없음은 큰 차이가 아니다. 대부분 찰랑찰랑하게 눈물이 몸을 가득 채운 듯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선을 넘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선을 넘어버리면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 많은 약들을 처방받는 순간, 약에 의존해 살지 않으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이 너무 가엾게 느껴진다. 나의 눈물과 이 약들은 내가 잘못된 사람임을 상징한다.

예약을 잡기 힘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를 찾는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잘못된 사람’, ‘고쳐져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 유효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척도, 즉 규범은 과잉이나 결여를 만들어낸다. 이상현상을 과다나 과소로 표현한다는 것은 규범을 정상의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의 상태, 즉 생리적인 상태는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서의 상태는 아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향한 애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 특정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슬퍼해야하는 순간 웃는다든가, 웃어야하는 순간 눈물이 난다든가, 화가 나야하는 순간 즐겁다든가, 기뻐야하는 순간 좌절감이 느껴진다. 공동체의 감정 - 그런 것이 있다면 - 과 엇갈린 감정을 가진 나는 종종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아니면 적어도 소시오패스는 아닐지 고민한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흔히 범죄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낙인이 찍혀진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사람들은 그 고민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아 어쩐지...’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의 나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주시한다. 남들과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은 아마 그들도 잘 알겠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로 인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버리지도 않는다.

/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말도 안되는 명칭이라고 생각했지만 따져 묻지는 않았다. 에이섹슈얼을 그렇다 치고,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의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호모로맨스가 어떻게 성립이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인생이란 자신이 무엇인지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 마련이니, 그 혼란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누군가와 의 섹스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말이 되네 안되네, 하며 그와 논쟁을 할 만큼 할 일이 없지도 않다.

아직도 스스로를 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말이 없어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겠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는 이 복잡한 명칭은 그가 얼마나 많은 혼란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그나마의 명칭마저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암시하기도 한다. 불리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쳐 부를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기는 하다. ‘패싱’.

/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을 눈으로 쫓다가 기절하고야 말았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볼 때 많은 정보들을 흘려보내고 중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뽑아낸다. 그것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며



정의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구름의 미세한 색의 차이들과 소란스러운 움직임은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와 나의 신체와 반응한다. 그 자극이 강할 때 나는 무리함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코피를 쏟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의 얼굴은 나에게 단번에 기억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피부색은 일정치 않으며, 눈의 크기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들은 바람결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그것을 미처 분류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나를 스쳐지나간다. ‘분류할 수 없음’은 한때 나의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이 될 때 ‘사회’라는 틀 안에서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나는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을 짧게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상대방을 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순간의 만남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얼굴들을 기억해야 하는게 아닌가? 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체는 왜 내 마음과 다르게 반응한다.

/ 엄마는 날더러 왜 이렇게 나쁜 오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좋은 기억은 없느냐고. 이상하게도 없다. ‘좋은 기억’일 수 있던 상황들이 나에게서는 ‘갈등’의 순간으로 남아있다. 어릴 때부터 불안증이 심했는데, 그 원인은 모른다. 아니, 알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단둘이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행복한 순간에, 나는 불안하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내 반응이 실패하면 ‘나쁜년’, ‘못된년’, ‘재수없는년’이라는 말을 들어야했다. 실패는 나쁜 기억으로 남겨지고, 실패하지 않은 순간은 갈등의 기억으로 남겨졌다. 두 살 때 한국전쟁을 겪은 아빠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행기 소리만 나면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한다. 나는 한국전쟁과 같은 거대한 재앙을 겪은 적은 없지만, 내 안의 아이가 항상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기분이다.

/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보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 그것을 본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을 본 것이 나 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오히려 이상한, 멍청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는게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맞는지, 자신을 의심하는 편이 더 나왔다.

그 후 몸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되자, 그 감각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의 고통이 되었고 병원에 가봤지만 어떤 진단도 받지 못했다. 나의 고통은 아무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단받아지지 않은 몸 상태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겉으로 아무 표시가 나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을 때 고통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이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한건가?

/ 몸을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다. 어릴 때야 다들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기 마련인데 나는 멀미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식으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렇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위장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나는 멀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어쩌면 나는 버스라는 공간에서 내 몸을 어떻게 적응시켜야하는지를 터득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 버스의 흔들림에 대항해서 버티지 않고, 그것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도 나와 내 몸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무엇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감정적 반응이든 감각적 반응이든 간에. 그것은 환경과 내 몸이 함께 하는 대화이다.

/ 내가 손을 번쩍 들면,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가 나에게 해준 말과는 아주 달랐다. 아빠는 수업시간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당부해주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고, 나는 아빠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 처음에는 손을 들까말까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물어보지 않으면 결국 내가 궁금했던 것은 수업이 끝날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역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생님은 나에게 눈살을 찌푸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날 싫어한다는 느낌은 학교생활을 어렵게 했다. 학기가 끝나고 받아 온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손들기 전에 세번 이상 생각해볼 것’. 아빠가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봤던 것인지,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바빴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둘 다 세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겠지. 그 해 나 역시,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배웠다.

/ 모든 것들이 결국 코메디처럼 보이면 좋겠어. 짐 자무쉬 영화처럼. - 아마, 쉽지 않을걸.

죽음과 대면하여 웃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얻게 되는 모종의 즐거움도 있다. 죽음을 가지고 농담하면서 죽음의 쿿대를 꺾어놓고,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농담의 목적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비하하는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부터 이미 우스꽝스러웠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언어적인 동물은 저 밑바닥까지

부조화스럽다.

자크 라캉은 “농담의 가치는 (...) 모든 의미의 사용에서 근원적 무의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했다. 농담은 우연하게 구축된 현실의 본질을 밖으로 끄집어내기에, 무심코 그것의 취약성을 노출시킨다.

- 테리 이글턴, 『유머란 무엇인가』, 27쪽, 45쪽, 55쪽

\* (뒤부아레이몽, 1860)

올리버 섉스, 『편두통』, 41쪽~42쪽 (강창래 역, 알마: 2019)에서 참조

\*\* 조르쥬 캉길렘, 『정상과 병리』, 71쪽 (본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함)